

2 뉴스

대학 총장 97.8% 등록금 인상 '필요'

임주양 기자 0816wndid@knu.ac.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7.8%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개최된 대교협 하계대학 총장세미나에서 대교협의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 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7월 7일 발표했다. 대교협 회원대학 193개교 중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을 제외한 138개교의 총장들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회원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 중 1위는 '재정 지원 사업', 2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 3위는 '등록금 인상'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 영역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 1월에 실시된 '대학 총장 설문조사'에서 35.5%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6.7%P 높은 수치인 52.2%를 기록했다.

또한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동결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대학 중 97.8%가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8개교 중 13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인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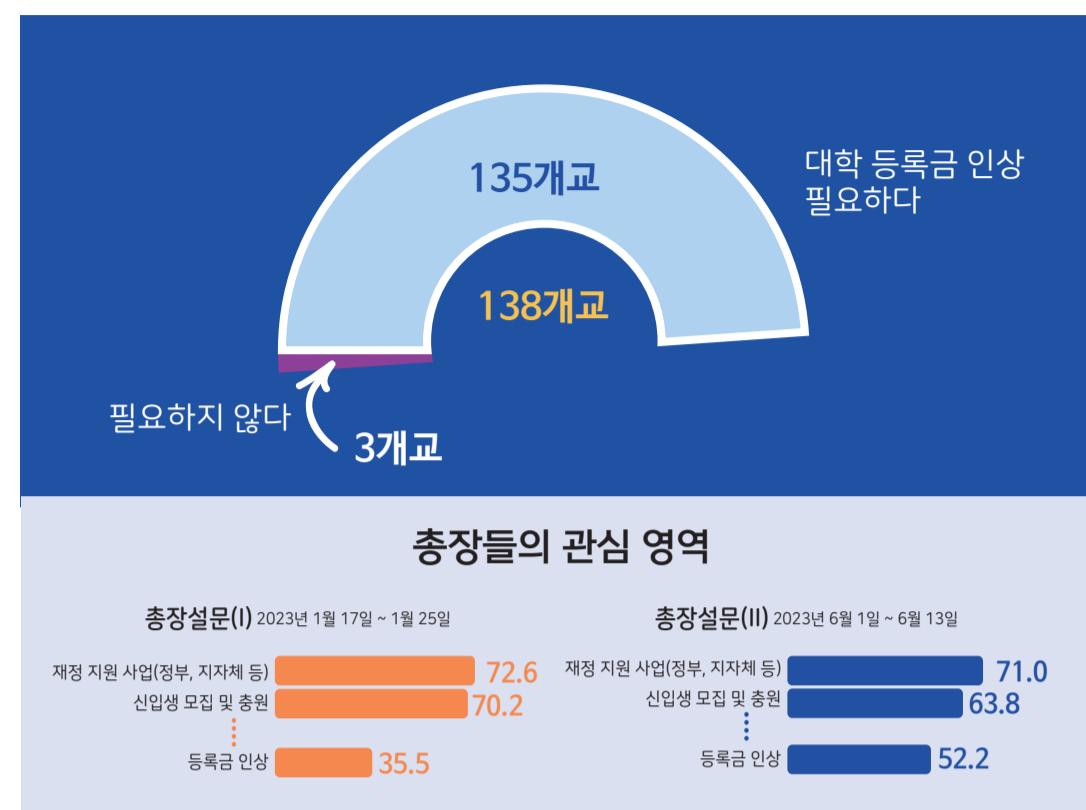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이와 대비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

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 평균 등록금은 793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15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기획조정처 예산팀 윤필영 과장은 "등록금을 동결해 왔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등록금에 대해 협상 중이고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방향성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 조영준(행정학 2022) 씨는 "우리학교 등록금이 서울 사립대학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교내 노후한 시설들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등록금 인상이 교내 시설 개선과 학생 복지 향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등록금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어영문학과 A 씨는 "강의에 대한 수강정원 배분이 적절치 않아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친 등록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발표된 대학총장 설문조사 결과다. 등록금 인상은 총장들의 관심 영역 중 3위를 차지했다. (좌측 기사 참조)

세부성적 미입력 교수 감점

김서희 기자 smile965@knu.ac.kr

지난 1학기 세부성적 입력에 따른 교수 업적 평가 감점 제도가 처음 시행됐으나 실제 감점은 오는 2학기부터 이뤄진다.

세부성적은 ▲최소 2개의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력 기간 내에 세부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미입력'으로 분류된다.

우리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세부성적 공개제도 의무화 등을 통해 세부성적 입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교수 업적평가 감점 제도 역시 그 연

장선으로 세부성적 미입력에 폐널티를 부여해 입력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교수 업적평가 감점 제도는 세부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강좌당 교수의 교원업적평가 점수 10점이 감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3학년도 1학기, 교수 업적평가 감점 제도가 시행됐으나 주의 정도로만 진행됐다. 실제 감점은 오는 2학기부터 이뤄진다. 학사지원 팀에 따르면 세부성적 항목이 출석 또는 과제와 같이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독립 심화와 같은 강의의 경우 예외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의 행정

적 보완 및 교수들의 새로운 제도 도입의 인지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한편, 지난 1학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는 세부성적 미공개 강좌에 대한 대응 사업으로 세부성적 미공개 강좌 신고 창구 운영했으나 관련 요청 건은 없었다. 이는 2학기 역시 동일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창구 외에도 상시로 교육권 침해 및 교육 과정 관련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학자추는 "앞으로도 학우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72기 신입기자 공개모집



지원자격

-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1학년, 2학년)
-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자

2023년 9월 8일(금)
서류제출 마감

모집전형

- 신입기자(0명)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2. 뉴미디어기자(0명) (영상 제작 및 포토샵이 가능하거나 뉴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자)

- 1차 서류제출 마감 : 9월 8일(금)까지
- 2차 면접평가 : 9월 13일(수) 오후 6시 이후 (신문방송국 대면 면접)

* 면접 시간은 응시자의 일정에 따라 지정될 예정입니다.

선발일정

- 대학주보 홈페이지 배너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대학주보 : media.knu.ac.kr/khunews)

지원방법

- 기사 작성 시 원고료 지급

• 해외취재 기회 제공